

어느덧 대식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마침 남녀 선교회에서
교인들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정말 적절할 나눔으로 봉사가 아닐 수 없습
니다.
아무쪼록 정성스럽게 엮어지는 이 지면들이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함
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참된 나눔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즐·함·울” 창간호에 바라는 작은소망

이 재 원 장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이 서
로 돕고 사랑하며 각자의 말은
분량과 분수의 재능대로 일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어떤 8주년이
지나고 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
이 가족처럼 한데 모여 오순도
순 시작되어진 작은 개척교회가
어느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듯 많은 성도들
로 가득차게 되어 이제는 말로
만으로는 부족하여 지면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
감회가 새롭고 주님에 대한 믿
음이 한층 더 두터워진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성
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건립하기
에 힘썼고 전사적인 사업보다
소리없이 뒤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구제에 힘쓰는 것
이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이
라 생각해온 우리 교회가 하나
님의 새로운 뜻을 받들어 오를

날 선교차원에서 정신여고의 감
당을 건립하고자 하는데까지 발
전한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로 흔치 않은 일이라 착공
에서부터 완공까지에는 학교당
국 기타 관계자들과의 많은 어
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성도님들의 지혜와 격려, 젊은
이들의 새로운 지식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과거에는 이 사업
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의 새로
운 관심과 이해로 우리가 다함
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듯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때만 하
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
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남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고싶어
합니다. 이런 일들만 고집하다
가 흔히 작고 사소한 일들을 소
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
다. 위대한 인물뒤에는 사람과
관심으로 보살펴준 더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법입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남

의 의견에 귀기울일줄 아는 사
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큰
뜻을 알고 받드는 사람일 것입
니다. 마음속의 자(尺)를 만들
어 자신들의 자로 서로를 재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어리석음
을 범하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
를 이해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
하여 우리들 마음속의 담을 허
물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
람들의 소중한 마음들이 “함즐
함울, 지를 통하여 전해졌으면 하
는 마음 간절합니다.

‘함즐함울, 발간을 계기로 서로
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
려 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을 주신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간의 관계회복을 갖게 하시
고 특히 교회에서 주위와의 관
계를 소홀히하고 하나님만을 바
라보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
원해 주시옵소서.

남성 성가대 창설

지난 7월24일 수요일예배부터
남성성가대가 창설되어 하나
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동
안 주부성가대가 아름다운 화
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렸는
데 이번 남성성가대의 창설로
교대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
니다.

따라서 앞으로 홀수주간 수요일(첫째·셋째)

은 주부성가대가, 짝수주간 수요일(둘째·넷째)

은 남성성가대가 찬양을 맡게 됩니
다.

그리고 다섯째 주 수요일은
합동으로 찬양을 드리게 됩니
다.

이번에 창설된 남성성가대는

대부분 백발의 노인자들로 구

성되어있는데 특히 이재원 장

로의 지휘로 드린 이날의 찬양

은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

니다.

“예배는 정성스럽게
예배 5분전 참석을.”

안내1부(부장 한윤경집사)부
원 30명은 주일 대예배·찬양예
배·삼일예배의 안내봉사를 하
고 있습니다.

예배는 마음을 가다듬고 성성
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것을 드
리는 결단이요, 주님과 대화하
는 시간입니다.

예배시작 5분전에 입석하서
서 성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합
시다.

지각 참석으로 다른 성도들
에게 불편을 주는것이 올바른
교인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까요. 다함께 생각해 보십시
요.

「나눔의 주일」 동참 요망
구제부

구제부(부장 이정순집사)에

서는 불우성도 및 농어촌교회
를 위하여 의류, 생활용품, 도서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은
깨끗이 선별하여 매월 넷째 나
눔의 주일에 정선여고 1층 예배
실에 접수하여 주시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청년부 중국 선교여행

청년부에서는 강서영전도사
의 인솔로 8월12일부터 8월24
일까지 중국 선교여행을 합니
다.

초등부 성가대 수련회

초등부 성가대 20명은 김진
수전도사의 인솔(감사 안사무
엘 전도사)로 8월8일부터 8
월10일까지 전남 여천 서금란
집사택에서 수련회를 갖습니
다.

美남가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형상〉팀 공연

지난 7월21일 2부 예배후 10
시45분부터 11시15분까지 미국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
로 구성된 어린이 찬양팀 〈하
나님의 형상〉의 찬양·율동공연
이 4층 예배실에서 있었습니
다.

이날 공연에서 관람 성도들
은 율동에 맞춰 함께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
니다.

◆ 주님의 교회 남녀 연합선교회 안내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래(표)와 같이 연 등록하지 못하신 교우는 등록하셔서 알찬
령별로 선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봉사의 기회를 가지십시오.

출생년도	남선교회	회장 및 연락처	여선교회	회장 및 연락처
1945년 이전	제 1 남	이지화집사(553국 4052)	제 1 여	전영선집사(0342 705국 8006)
1946~ 50년	제 2 남	조원호집사(572국 2545)	제 2 여	김경희집사(592국 6657)
1951~ 55년	제 3 남	김성구집사(502국 7452)	제 3 여	박순실집사(817국 4759)
1956~ 60년	제 4 남	이종갑집사(3452국 5749)	제 4 여	심유석집사(3452국 5749)
1961~ 65년	제 5 남	황정연집사(603국 0708)	제 5 여	김영림집사(504국 1074)

가족수련회 은혜속에 마쳐
7월28~ 30일까지 황성수련원서



전교인 하기 수련회가 지난 7
월28일부터 30일까지 “기억하
라.(전12:1) 주제하에 3일간 강
원도 황성 수련원에서 개최되었
습니다.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어른·어린이를 따로 구분하지않
고 가족수련회 형식으로 진행하
여 한층 더 은혜스러웠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는 미국

LA에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도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나누는 좋은 기회

가 되었습니다.

뇌성마비 고아돕기
제2여선교회

제2여선교회(회장 김경희집

사)에서는 뇌성마비 고아돕기
운동을 후암농에 있는 애니아의
집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
참을 바랍니다. 동참을 희망하
시는 분은 김원경집사 (532국 4
200)에게 연락바랍니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마지막
목요일 YMCA에서 오전 10시
에 출발합니다.

토요일 예배처소 청소
봉사·미화부 활동으로

봉사부와 미화부에서는 주일
대예배 준비를 위하여 매주 토요
일 오후 4시부터 청소등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차량주차 협조 바랍니다.” 안내2부

안내2부(부장 문창복집사)에
서는 주일예배를 위하여 오전 7
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차량안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를 당부합니
다.

1. 교통법규를 일반도로와 동

일하게 지켜주시시오. (정문 통

과 및 주차시 방향등 표시)

2. 주차시 전면 주차 (잔디 및
수목보호)
3. 동승자 상·하차는 차량의
정체 방지를 위하여 주차장소
에서 상·하차.
4. 도로상 주차시는 기아 중
립·핸드 브레이크 사용금지.
5. 교회 스티커 부착.
6. 안내원에게 적극 협조 바
랍니다.

1. 97년 정신여고 졸업
예정자중 대학합격
후 가정형편이 어려
워 등록하지 못하는
학생 5명 선발 장학
금 지급.

남녀연합선교회

96공동사업계획

2. 캄보디아 파송 이성
민집사 후원
3. 성지순례 11월경
(부부및 개인) - 강
은애집사(554국 63
05)

참여하시어 아름다운 예배처소
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니다.

7월 월례회가져
제5여선교회

제5여선교회(회장 김영림집
사)는 지난 7월 9일(화) 신철
범목사님을 모시고 7월 월례회
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 월
례회는 연합으로 드릴 예정입
니다.

그동안 제5여선교회지를 엮
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3남선교회 간담회

제3남선교회(회장 김성구집
사)는 지난 6월30일 2부예배후
올해 사업계획과 신입회원 상견
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부부
이성민·김창숙씨귀국

캄보디아에 파견된 이성민·
김창숙 선교사 부부가 휴가를
맞아 8월14부터 9월6일까지 서
울에 머물게 됩니다. 후원자 여
러분을 찾아뵙고 선교보고를 겸
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
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으로
연락바랍니다. 회사: 528국 78
41, 집: 406국 3993

「정신 노래선교단」연주회
「농촌선교회봉사대」도 활동

1969년 창단되어 올해로 28년
째를 맞고있는 〈정신노래선교
단〉(단장 지동소교장, 지도교사
박영주집사·3남, 이웅배집사·4
남, 이용목목사, 김윤숙선생)이

지난 7월12일부터 18일까지 지
방 순회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정신여고의 전학이념인 복음선
교와 청소년 정서 함양의 장을
마련하기위해 해마다 순회연주
회를 실시해오고 있는 〈정신노
래선교단〉은 올해 전국 10여 지
역에서 학생·군인·일반인 등 6
천7백명에게 연주회를 선보여
많은 감동과 감재를 받았습니
다. 아울러 정신여고 〈농촌선교
봉사대〉58명(교사 6명·학생 52

명)도 7월15일부터 19일까지 전
북 고창을 월산교회, 신촌교회,
익산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김
매기·마을청소·마을전도등 봉
사를 하였습니다.

용인군 맹인마늘서
면장갑류 구입호소

경기도 용인의 맹인집단거주
지에서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
여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주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내왔으나 점차 도움
의 손길이 줄어 생활방편으로
면장갑류를 만들어 팔고 있지만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 면장갑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소속 선교회장
에 연락바랍니다.

/ 1인동정 /

〈개 업〉

- ▲하승락 집사: (주)아시아나
이벤트 여행사(525국3480~1)
- ▲한정용 집사: 손칼국수집 ‘옛
고을,(598국1398)
- ▲김애라 집사: 김형석 성형외
과(501국7400)
- ▲안수진 집사: 수진학원 (511
국0580)
- ▲박정우·안신자 집사: 시내약
국 (608국8662)
- ▲민한기·김복희C 집사: 평강의
원(일반외과)(0331 262국7461)
- ▲한상근 집사: 곤지암구발 생
등심 (515국7431)
- ▲윤의탁 집사: 파크랜드 남성
복판매 (556국5947)
- ▲한병호 집사: 전자제품 카이
노스통상 (546국2712)
- ▲박영준집사 카이노스귀금속
(545국1466)
- ▲김용석·강유순집사: 고명약
국 (575국7781)

〈소 천〉

- ▲조은경 집사 부친상 6월10일
- ▲이광자 집사 모친상 6월24일
- ▲박혜숙 집사 부친상 6월24일

- ▲최민애 집사 모친상 7월5일
- ▲전경화 집사 조부상 7월8일
- ▲오영욱 집사 부친상 7월18일
- ▲박재정 성도 부친상
〈입 원〉
- ▲남정임 집사: 세브란스병원
혈관심장센터 별관 10층51호(3
61국6051)
- ▲김홍용(고등부): 한양대 소아
과 731
- ▲신은희 집사: 삼성의료원 (34
10국1164)
- ▲김혜신 성도: 경희의료원 (9
58국8927)
- ▲지인숙집사: 삼성제일병원 5
18호 (262국7518)

〈퇴 원〉

- ▲백승준 집사 교통사고
- ▲장남순 권사 수술완쾌
〈이 사〉
- ▲안중철·김시욱 성도: 방이동
코오롱A 105동709호 (202국8777)
- ▲김연수·이경아 집사: 평촌 꿈
마을 한신A 707동503호 (0343
81국4419)
- ▲권병희·장성희 성도: 경기 이
천 설성면 상봉2리 139 (0331 2

90국2548)
▲최두순·이정화 집사: 고양 일
산동 방가자 건영빌라 912-304
(0344 906국0100)
▲박정자 집사 분당으로 이사
(0342 714국7664)

〈출 국〉

- ▲김의수집사·김경신 권사: 미
국 1년간
- ▲나인철·김현진 집사: 미국 텍
사스대학 1년간
- ▲임창우·백미경 집사: 미국 캘
리포니아 주립대학 1년간
- ▲이천용 집사: 미국 유학
- ▲이윤철성도: MBC방송 애플
랜타 올림픽 중계차, 7월12일부
터 18일까지

〈출 산〉

▲김일·이정표 집사: 차남득남

〈결 혼〉

▲조남홍·전영진 집사: 장남 상
연군

〈공 연〉

▲김종범·신혜영집사부부: 7월
25일부터 8월8일까지 일본서 세
계5개국 음악페스티벌·네부터
북잔치·동북 아시아축제 연출